











# 박근혜는 11월 12일 정오까지 자진사퇴하라 남조선의 범국민투쟁 단체들 최후통첩, 판교역 적십관을 위한 다양한 투쟁 힘있게 전개,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를 공격, 괴뢰정권 마비상태

【광양】 11월 2일 밤 조선중앙통신보도에 의하면 4·16 대재와 백남기 투쟁 본부, 《싸드》 대처지지전 국행동, 민주주의 국민행동, 진보연대 등 29개 범국민 투쟁 단체들이 구성된 「11·12 박근혜 퇴진 촉구 시민대행진」 주최위원회가 1일 청와대 앞의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박근혜에 대한 최후통첩을 발표하였다.

추진 위원회는 최후통첩에서 국민들은 이미 박근혜에 「정권」에 사항선고를 내렸다고 하면서 국민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박근혜에게는 오직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선언하였다.

«미지막으로 경고한다. 청사 대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균원인 박근혜는 오는 11월 12일 청와대 앞에서 자진해서 대통령직을 사퇴하라.»고 하면서 단체는 박근혜가 국민의 명령을 끌어내리거나 대통령직을 사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박근혜에게는 대형 정치범으로 기소하겠다고 표명하였다.

단체는 경악스러운 국정부민 범죄의 공범자인 「세우리당」에 대한 경고하고 밝혔다.

범죄에 관련된 자들은 모두 처벌을 받아야 하며 직접 거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소한 방조를 제공한 책임을 지고 경제계는 상당히 세우리당은 즉각 자진해체하고 단체는 요구하였다.

단체는 11월 12일 정오를 기한 범국민행동으로서 광화문과 성당, 철물로 포함한 전지역의 방방곡곡에서 민주주의를 넘원하는 경향을 끌어내리거나 차단장을 강제히 요구하는 국민적의지를 표시하자고 호소하였다.

또한 이날 오후 2시 서울 대학교에서 시작되는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대행진」에 모두가 참가하여 오만무도하고 과격지한 「정권」에 대한 분노를 총폭발시

킬것을 단체는 제안하였다.

아울러 전지역의 주요 도시와 지역에서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와 기리행진, 『세우리당』 항의 행사를 힘차게 전개할 것을 당

거리와 학교, 직장에서 박근혜 퇴진을 위한 국민 서명운동을 벌릴것을 단체는 호소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민주주의 국민 행동 광동대표, 백남기 투쟁본부 광동대표,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 정경호 회장 등이 발언하였다.

발언자들은 박근혜는 이미 『대국민사과』를 발표한 다음날인 10월 26일에 정치적으로 다른 죽었다. 이제 남은 것은 생계지출과 예술의 첫출발이 박근혜에게 되었으며 살값을 지지하고 요구하며 거리에 나온 70대의 노인이 정찰의 살인 폭력을 입는 등 참으로 많은 참극이 벌어졌다고 단체들은 심痛하였다.

단체들은 박근혜에 대한 평등과 같이 블로그를 이용해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여온 304명의 학생과 국민을 살려내려고 하면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변명하고자 하지 않고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말며 더 이상 국민을 죽이지 말고 즉각 하야하기를 강조하였다.

그들은 「자기 혼자 마음속에 터트리고 대로 『대통령』의 짜증을 다 할 수 있는가?」

개성 평양대교와 『싸드』 대체 결정에 막후 실세 개임의 흥이 끊어지는 대로 『정부』의 수반인가? 맞는가?

『대통령』과 페트를 뛰어넘고 있는가?『국가』를 대로 할 자식이 있는가?

『국가』를 통제로 민간에게 위탁하고 대로 『대통령』의 짜증을 다 할 수 있는가?

개성 평양대교와 『싸드』 대체 결정에 막후 실세 개임의 흥이 끊어지는 대로 『정부』의 수반인가? 맞는가?

『대통령』과 페트를 뛰어넘고 있는가?『국가』를 대로 할 자식이 있는가?

『국가』를 통제로 민간에게 위탁하고 대로 『대통령』의 짜증을 다 할 수 있는가?

개성 평양대교와 『싸드』 대체 결정에 막후 실세 개임의 흥이 끊어지는 대로 『정부』의 수반인가? 맞는가?

『대통령』과 페트를 뛰어넘고 있는가?『국가』를 대로 할 자식이 있는가?

『국가』를 통제로 민간에게 위탁하고 대로 『대통령』의 짜증을 다 할 수 있는가?

개성 평양대교와 『싸드』 대체 결정에 막후 실세 개임의 흥이 끊어지는 대로 『정부』의 수반인가? 맞는가?

『대통령』과 페트를 뛰어넘고 있는가?『국가』를 대로 할 자식이 있는가?

『국가』를 통제로 민간에게 위탁하고 대로 『대통령』의 짜증을 다 할 수 있는가?

개성 평양대교와 『싸드』 대체 결정에 막후 실세 개임의 흥이 끊어지는 대로 『정부』의 수반인가? 맞는가?

『대통령』과 페트를 뛰어넘고 있는가?『국가』를 대로 할 자식이 있는가?

『국가』를 통제로 민간에게 위탁하고 대로 『대통령』의 짜증을 다 할 수 있는가?

개성 평양대교와 『싸드』 대체 결정에 막후 실세 개임의 흥이 끊어지는 대로 『정부』의 수반인가? 맞는가?

『대통령』과 페트를 뛰어넘고 있는가?『국가』를 대로 할 자식이 있는가?

『국가』를 통제로 민간에게 위탁하고 대로 『대통령』의 짜증을 다 할 수 있는가?

개성 평양대교와 『싸드』 대체 결정에 막후 실세 개임의 흥이 끊어지는 대로 『정부』의 수반인가? 맞는가?

『대통령』과 페트를 뛰어넘고 있는가?『국가』를 대로 할 자식이 있는가?

『국가』를 통제로 민간에게 위탁하고 대로 『대통령』의 짜증을 다 할 수 있는가?

개성 평양대교와 『싸드』 대체 결정에 막후 실세 개임의 흥이 끊어지는 대로 『정부』의 수반인가? 맞는가?

『대통령』과 페트를 뛰어넘고 있는가?『국가』를 대로 할 자식이 있는가?

『국가』를 통제로 민간에게 위탁하고 대로 『대통령』의 짜증을 다 할 수 있는가?

개성 평양대교와 『싸드』 대체 결정에 막후 실세 개임의 흥이 끊어지는 대로 『정부』의 수반인가? 맞는가?

『대통령』과 페트를 뛰어넘고 있는가?『국가』를 대로 할 자식이 있는가?

『국가』를 통제로 민간에게 위탁하고 대로 『대통령』의 짜증을 다 할 수 있는가?

개성 평양대교와 『싸드』 대체 결정에 막후 실세 개임의 흥이 끊어지는 대로 『정부』의 수반인가? 맞는가?

『대통령』과 페트를 뛰어넘고 있는가?『국가』를 대로 할 자식이 있는가?

『국가』를 통제로 민간에게 위탁하고 대로 『대통령』의 짜증을 다 할 수 있는가?

개성 평양대교와 『싸드』 대체 결정에 막후 실세 개임의 흥이 끊어지는 대로 『정부』의 수반인가? 맞는가?

『대통령』과 페트를 뛰어넘고 있는가?『국가』를 대로 할 자식이 있는가?

『국가』를 통제로 민간에게 위탁하고 대로 『대통령』의 짜증을 다 할 수 있는가?

개성 평양대교와 『싸드』 대체 결정에 막후 실세 개임의 흥이 끊어지는 대로 『정부』의 수반인가? 맞는가?

『대통령』과 페트를 뛰어넘고 있는가?『국가』를 대로 할 자식이 있는가?

『국가』를 통제로 민간에게 위탁하고 대로 『대통령』의 짜증을 다 할 수 있는가?

개성 평양대교와 『싸드』 대체 결정에 막후 실세 개임의 흥이 끊어지는 대로 『정부』의 수반인가? 맞는가?

『대통령』과 페트를 뛰어넘고 있는가?『국가』를 대로 할 자식이 있는가?

『국가』를 통제로 민간에게 위탁하고 대로 『대통령』의 짜증을 다 할 수 있는가?

개성 평양대교와 『싸드』 대체 결정에 막후 실세 개임의 흥이 끊어지는 대로 『정부』의 수반인가? 맞는가?

『대통령』과 페트를 뛰어넘고 있는가?『국가』를 대로 할 자식이 있는가?

『국가』를 통제로 민간에게 위탁하고 대로 『대통령』의 짜증을 다 할 수 있는가?

개성 평양대교와 『싸드』 대체 결정에 막후 실세 개임의 흥이 끊어지는 대로 『정부』의 수반인가? 맞는가?

『대통령』과 페트를 뛰어넘고 있는가?『국가』를 대로 할 자식이 있는가?

『국가』를 통제로 민간에게 위탁하고 대로 『대통령』의 짜증을 다 할 수 있는가?

개성 평양대교와 『싸드』 대체 결정에 막후 실세 개임의 흥이 끊어지는 대로 『정부』의 수반인가? 맞는가?

『대통령』과 페트를 뛰어넘고 있는가?『국가』를 대로 할 자식이 있는가?

『국가』를 통제로 민간에게 위탁하고 대로 『대통령』의 짜증을 다 할 수 있는가?

개성 평양대교와 『싸드』 대체 결정에 막후 실세 개임의 흥이 끊어지는 대로 『정부』의 수반인가? 맞는가?

『대통령』과 페트를 뛰어넘고 있는가?『국가』를 대로 할 자식이 있는가?

『국가』를 통제로 민간에게 위탁하고 대로 『대통령』의 짜증을 다 할 수 있는가?

개성 평양대교와 『싸드』 대체 결정에 막후 실세 개임의 흥이 끊어지는 대로 『정부』의 수반인가? 맞는가?

『대통령』과 페트를 뛰어넘고 있는가?『국가』를 대로 할 자식이 있는가?

『국가』를 통제로 민간에게 위탁하고 대로 『대통령』의 짜증을 다 할 수 있는가?

개성 평양대교와 『싸드』 대체 결정에 막후 실세 개임의 흥이 끊어지는 대로 『정부』의 수반인가? 맞는가?

『대통령』과 페트를 뛰어넘고 있는가?『국가』를 대로 할 자식이 있는가?

『국가』를 통제로 민간에게 위탁하고 대로 『대통령』의 짜증을 다 할 수 있는가?

개성 평양대교와 『싸드』 대체 결정에 막후 실세 개임의 흥이 끊어지는 대로 『정부』의 수반인가? 맞는가?

『대통령』과 페트를 뛰어넘고 있는가?『국가』를 대로 할 자식이 있는가?

『국가』를 통제로 민간에게 위탁하고 대로 『대통령』의 짜증을 다 할 수 있는가?

개성 평양대교와 『싸드』 대체 결정에 막후 실세 개임의 흥이 끊어지는 대로 『정부』의 수반인가? 맞는가?

『대통령』과 페트를 뛰어넘고 있는가?『국가』를 대로 할 자식이 있는가?

『국가』를 통제로 민간에게 위탁하고 대로 『대통령』의 짜증을 다 할 수 있는가?

개성 평양대교와 『싸드』 대체 결정에 막후 실세 개임의 흥이 끊어지는 대로 『정부』의 수반인가? 맞는가?

『대통령』과 페트를 뛰어넘고 있는가?『국가』를 대로 할 자식이 있는가?

『국가』를 통제로 민간에게 위탁하고 대로 『대통령』의 짜증을 다 할 수 있는가?

개성 평양대교와 『싸드』 대체 결정에 막후 실세 개임의 흥이 끊어지는 대로 『정부』의 수반인가? 맞는가?

『대통령』과 페트를 뛰어넘고 있는가?『국가』를 대로 할 자식이 있는가?

『국가』를 통제로 민간에게 위탁하고 대로 『대통령』의 짜증을 다 할 수 있는가?

개성 평양대교와 『싸드』 대체 결정에 막후 실세 개임의 흥이 끊어지는 대로 『정부』의 수반인가? 맞는가?

『대통령』과 페트를 뛰어넘고 있는가?『국가』를 대로 할 자식이 있는가?

『국가』를 통제로 민간에게 위탁하고 대로 『대통령』의 짜증을 다 할 수 있는가?

개성 평양대교와 『싸드』 대체 결정에 막후 실세 개임의 흥이 끊어지는 대로 『정부』의 수반인가? 맞는가?

『대통령』과 페트를 뛰어넘고 있는가?『국가』를 대로 할 자식이 있는가?

『국가』를 통제로 민간에게 위탁하고 대로 『대통령』의 짜증을 다 할 수 있는가?

개성 평양대교와 『싸드』 대체 결정에 막후 실세 개임의 흥이 끊어지는 대로 『정부』의 수반인가? 맞는가?

『대통령』과 페트를 뛰어넘고 있는가?『국가』를 대로 할 자식이 있는가?

『국가』를 통제로 민간에게 위탁하고 대로 『대통령』의 짜증을 다 할 수 있는가?

개성 평양대교와 『싸드』 대체 결정에 막후 실세 개임의 흥이 끊어지는 대로 『정부』의 수반인가? 맞는가?

『대통령』과 페트를 뛰어넘고 있는가?『국가』를 대로 할 자식이 있는가?

『국가』를 통제로 민간에게 위탁하고 대로 『대통령』의 짜증을 다 할 수 있는가?

개성 평양대교와 『싸드』 대체 결정에 막후 실세 개임의 흥이 끊어지는 대로 『정부』의 수반인가? 맞는가?

『대통령』과 페트를 뛰어넘고 있는가?『국가』를 대로 할 자식이 있는가?

&lt;p